

李退溪의 群經意識**

周 何*

• 目 次 •

I. 序 論	(四). 左傳
II. 退溪의 群經意識	(五). 周禮
(一). 易經	(六). 禮記
(二). 儀禮	III. 結 論
(三). 春秋	

I. 序 論

儒家の 경전은 최소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일찍이 孔子가 친히 編定한 문헌이다. 莊子 天運篇에,

孔子가 老聃에게 말하기를, 「나는 詩, 書, 禮, 樂, 易, 春秋, 六經을 연구하였다.」

는 기록이 있다. 그 후에 樂經이 失傳되었으므로 西漢이후로는 五經만 있을 뿐이었다.

다른 하나는, 禮記, 左傳, 公羊傳, 穀梁傳, 孝經, 爾雅 등 후세의 유학자들이 五經을 闡釋 발휘한 것과 논어, 맹자처럼 성인의 당시 언행을 기록한 것, 周禮 같은 사상과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다. 이러한 책들은

* 臺灣사범대학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32호(1981) 게재논문

응당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완성된 것으로, 비록 후인들이 이러한 책들의 가치를 존중하여, 그것들도 經書의 범위 안에 列入시켰지만, 그러나 궁극에 있어서는 공자가 編定한 五經과는 다른 것이다.

史記 孔子世家는, 공자가 일찍이 夏, 殷, 周 3대의 禮를 탐색하고, 尙書의 次序를 釐正하고, 3000여편의 시에서 禮義教化에 배합할 수 있는 것만 취하여 305편을 얻었으며, 만년에는 주역을 좋아하였고 魯國의 사기에 근거하여 春秋를 지었으며 또 詩, 書, 禮, 樂을 교재로 하여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쓰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 一, 이러한 것은 모두 공자 이전의 문헌으로 반드시 허다한 성현들의 인생체함과 지혜의 결정을 내포하고 있다.
- 二, 이러한 문헌들은 모두 공자의 정리나 선택을 거친 것이며 또 당시에 반드시 정리의 표준과 선택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 三, 공자는 이러한 정리나 선택을 거친, 내용이 가장 정순한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재로 삼았다.
- 四, 五經의 내용에 대해 말하면, 그것이 대표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적게는 개인의 進德수업, 크게는 천하의 王道와 仁政에 이르기까지 포함하지 않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것은 모두 가장 훌륭한 교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만약 정확한 풀이나 제시가 없으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가치는 아예 드러날 길이 없으며 공자가 부여한 교육적인 효과도 작용할 수 없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공자는 평생을 「述而不作」하였으므로 당시에 다만 말로 講授하여 문인제자들이 心神으로 깨닫기만을 요구하였을 뿐이었다. 후세 유학자들이 經義를 闡發한 연이은 각종 저작에 있어 대체로 여전히 공자가 講授한 宗旨를 준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저작 속에는 五經을 계승하여 명석한 闡釋 및 발휘를 한 문자가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자기의 독창적 견해를 섞어 놓은 것이나, 혹은 그 시대 사상 조류의 精髓를 흡수해 놓은 것도 있어서 유학의 사상체계를 더욱 세밀하고 완정

케 했고 이론범주를 더욱 충실하고 장대케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漢書藝文志에는 「제자가 물러나서는 말이 달랐다.(弟子退而異言)」고 했고, 韓非子顯學篇에는 「공자가 죽고부터 儒家에 八派가 있었다(自孔子之死也, 儒有八派).」고 했던 것이다. 사실 이것이 바로 正統經義의 闡述 이외에 다시 새로운 뜻을 채택하여 각자적으로 발전시킨 결과이다. 詩經에 齊詩, 魯詩, 韓詩, 毛詩 등 四家の 說이 있고 春秋에 三傳의 차이가 있음은 모두가 이러한 도리이다. 송대에 이르러 다시 佛, 道 兩家の 기본이론과 수양방법을 흡수하여 비록 여전히 儒家의 사상체계로서 중심을 삼았다고는 하나 새 성분을 더한 交糅混合을 거친 다음에 유학의 새로운 면모를 형성하였는데 이 또한 부단한 充實壯大化의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모두 학술 혹은 사상상의 자연발전의 정상적인 현상이라 보아야 마땅하며 이 도리를 이해한 다음에 不同한 朝代 經書 典籍 혹은 각 시대의 유학저술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을 통해 나아가 각 부분의 관통과 결과를 추구함으로써 전체적인 이해에 이른 다음에야 넉넉히 通儒라 칭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학술사상의 발전에 대해 말하면 전체는 많은 부분의 결합일 뿐 아니라 또한 원류가 있는 관통인 것이다. 만약 줄줄 흐르는 상류만 있고 波爛壯闊한 하류가 없다면 이는 영원히 한 줄기의 가는 물줄기로서 휘황찬란한 성취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만 물의 흐름을 잘라 한 모퉁이만 지키고 그 원류가 어느 곳에서 온 것인지를 모르면 왕왕 중횡으로 얽힌 수로에서 망설이고 방황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며 심지어는 주류의 소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現勢에 적응하느냐는 것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흐름의 원류를 알아 주류를 파악하고 당시 및 후세사람들에게 정확한 인생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중국학술사상사에 있어서 儒家의 많은 경전에 대해 회의하는 태도는 대략 당, 송대에 일어났으며 宋儒들이 더욱 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五經에 대한 의문은 그리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五經 이하의

典籍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理學者들에 있어서 더욱 편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불·도 兩家의 사유방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늘 心性理氣의 연구에 힘을 쏟아 개인 수신 방면에 매우 세밀한 공부과정을 제시하여 고원한 성현품격을 배양해 내었으며 後漢 이후로는 보기 어려웠던 氣節과 操守를 孕育해 내었다. 그러나 반대로 당초에 공자가 五經을 編定할 때 기대한 바 있던 광범한 範疇의 教育功能을 忍略하고 말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송나라가 망할 때 人性이 이미 提高되어 있었던 까닭으로 비록 허다한 감동적인 民族血淚史를 쓰긴 하였지만 송을 거쳐 명에 이르기까지 國勢의 계속적인 衰敝不振과 지식인의 보편적인 文弱 등은 아마 宋儒들도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조선의 이퇴계는 程朱學의 계통을 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의식가운데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유학의 경전에 대한 견해는 응당 程朱의 별다른 차이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II. 退溪의 群經意識

퇴계전서 가운데서 퇴계의 도덕과 학문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주로 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낼 수 있으며 全書 중에서 이 四書를 토론하고 인용한 것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이미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데다 동시에 그의 四書에 대한 가치관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하며 다만 퇴계의 四書 외의 기타 經書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一). 易 經

연보의 기록에 의거하면 庚辰年 퇴계 19세시에 「周易을 읽고 그 뜻을 講究하느라 거의 침식을 잊을 정도였다.」고 한다. 理氣를 말하자면

반드시 陰, 陽, 清, 濁과 太極, 有, 無 등에 관련되는데 이러한 기본관념은 반드시 易經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퇴계는 초년에 주역을 읽고 또 자세히 그 뜻을 탐구하였으므로 주역에 대해 상당히 깊은 이해를 갖추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일에 心性理氣의 學을 깊이 연구하였으므로 비록 여전히 주역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읽어야 옳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 부딪쳤던 것이다.

乙丑年の「與安道孫書」에 이르기를, 「易을 읽는 것도 하나의 큰 공부이다.」고 했다.

乙丑年の「答趙士敬書」에 이르기를, 「易은 읽기 어렵다. 朱子도 이미 여러번 이렇게 말했는데 하물며 우리같은 부류들에 있어서라? 다만 지금 伊川の 易傳과 朱子の 周易本義에 따라 伏羲, 文王, 周公, 孔子의 마음을 구하고 억지해석을 하지 않음으로서 潔淨精微한 易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면 과거의 어려웠던 것들이 차차로 난해하다는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며 아마도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讀易의 어려움이란 방법론에 있는 듯하다. 어려움이 방법론에 있다고 함은 사실은, 易經이 내포하는 면이 너무 넓어 우주관, 인생관, 정치관, 사회관 등 포함하지 않음이 없으며, 인정을 체험하고 世故를 숙지한 고도한 지혜의 표현인 데다 또 매개물에 구애되지 않고 깊고도 龐雜하며 풍부하면서도 광대한 데서 오는 것이다. 만약 아무런 제한이나 요구가 없다면 당연히 한 글자 한 귀절마다 풀이하고 토론하여 전면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만약 이미 어떠한 특정목표를 가지고서 읽는다면 취사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많은 사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법과 태도에 있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甲子年の 鄭子中에게 답한 편지에서 이르기를 「易을 읽음에 本義를 우선적으로 하려 하신다지요. 저의 종래 소견도 이러했습니다. 세상의 儒

者들이 여기에 생각이 미친 사람이 적었습니다. 비록 간혹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講業에 牽聯되어 去取를 분명히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역을 읽을 때 세상의 儒者들과 마찬가지로 本義를 보고 난 다음에도 늙고 병들어서 本義를 위주로 하고 程傳을 곁해서 읽음으로써 潔淨精微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대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讀易의 법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데 이 또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글을 보니 이미 이를 얻으셨다고요. 오직 힘쓰시길 바랄 뿐입니다.»라 했다.

庚子年의 鄭子中에게 답한 편지에서 이르기를, 「易은 바로 理數淵源의 책으로, 참으로 읽지 않을 수 없지만,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 학자의 日用工夫에 절실함만은 못합니다. 그러므로 先哲들은 배우기를 서두를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사실 窮理盡性의 學보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 주신 글에서 「학문은 실천하지 않으면 비록 아는 것이 있다하여도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 하셨는데 이는 참으로 지극히 절실한 말씀입니다. 주역을 읽을 때 만약 이 뜻을 소홀히 하면 차츰 의리와 서로 관계하지 않게 되고 날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라 했다.

퇴계는 이미 「窮理盡性의 學보다 급한 것은 없다」는 것을 노력, 추구의 특정목표로 삼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방법론에 있어서 곧 「先正其心」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先正其心」이란 바로 마음에 잡념이 없이 心力을 수요에 적합한 精要部分에 집중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 밖의 모든 의리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안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讀易時에 취사를 결정하는 표준을 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음으로는 태도에 있어서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다시 취사를 결정하는 표준을 한 조목 더 정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것은 반드시 「학자의 日用工夫에 절실해야만 된다」는 것이었다. 이 두 조목의 표준은 엄격히 말하면 모두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못하여 한계가 상당히 모호하다. 그러므로 그대로 지켜 행할 때 곧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퇴계는 易經이 難讀의 책으로 취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반하여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四書를 보

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비록 易經이 理數淵源의 책임을 잘 알았으나 四書學이 학자의 日用工夫에 절실히만 못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자 등 송대학자들의 說에 동의하여 배우기에 서두를 것은 아니라 생각했던 것이다.

(二). 儀禮

퇴계선생 행실에 이르기를 「만년에 다시 禮學에 뜻을 두어 遺傳을 토론하고 時宜를 참작하여 제자들을 가르쳤으나 책을 짓지는 않으셨다.」라 하였다. 비록 예학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지는 않았으나 예라는 것이 모든 일에 관계되며 더욱이 社會群體의 생활 가운데는 어느 곳에서는 禮와 관련이 되므로 수시로 누군가가 퇴계에게 禮事를 가르쳐 주길 원했다. 그리하여 소수 가운데 기재된 禮事의 자료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었다. (상세한 것은 拙稿 「이퇴계의 禮學」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퇴계의 禮事에 대한 판단이나 의견은 그 태도에 있어 매우 신중한 것이어서 혹은 古禮에 의거하고, 혹은 朱子家禮에 의거하고, 혹은 情理에 따라 忖度하고, 혹은 의심스러우나 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두어 논하지 않는 등 절대로 몇대로 아무렇게나 한 곳이 없었다.

퇴계는 乙丑年에 李仲久에게 준 편지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義에 맞게 하려면 임의로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古禮에 考據하여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사실상 퇴계전서에서 볼 수 있는 儀禮의 인용은 대부분이 士喪禮, 既夕禮, 士虞禮, 喪服 등의 四篇內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편지의 내왕이나 동시대인들을 응대할 때 절대다수의 문제가 대체로 喪禮 방면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의 喪禮도 때로는 시대의 변천과 社會상황의 바뀜 때문에 완전하게 용도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퇴계는 의례에 대해서도 늘 의문을 가졌으며 한결같이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었다.

乙丑年의 「與金而精別紙」에서, 아버지가 계실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

해서는 일년복(期服)을 입고 나서 탈상을 하며, 탈상 후의 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그대의 편지에는 五禮儀, 士大夫喪制條의, 大祥後에 白衣, 白笠, 白帶를 한다는 說을 인용하고 이로써 推想하여 어머니를 위한 일년상을 벗고 나서의 心喪의 服도 백의, 白冠, 白帶로 해야 할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실로 古禮에 가깝고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듯합니다. 예기를 보면 『흰 명주관에 흰 테두리를 한 것이 小祥과 大祥 사이에 喪主가 쓰는 것이다.』는 말이 있고, 詩經檜風 素冠篇을 보면 詩人 또한 素冠, 素衣, 素韠의 보기 어려움을 탄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옛날 脫喪後의 복장에 관, 옷, 띠 모두가 흰색을 썼음을 알겠습니다. 이것이 五禮儀에서 흰색을 쓰는 근거입니다. 주자가례를 보면 脫喪後의 복장에 모두 靑黑色을 쓰는데 비록 그 근거하는 바를 모르긴 하나 지금 사람들이 이에 의해 행해서 이미 습속이 되었고 기타 喪中の 服制도 대략 주자가례를 따르고 있는데 어찌 이것만은 반드시 온 세상이 遵用하는 家禮를 버리고 고대에 실행되다가 뒤에 폐지했던 제도를 따르겠습니까?…… 古禮를 따르면 祥祭와 禮祭가 1년여에 끝나고 家禮를 따르면 祥祭와 禫祭가 2년에 끝납니다.

또 禮記에 스승을 위해 心喪三年을 입고 喪服은 입지 않는다는 說이 있으나 달리 어머니를 위하여 心喪3년을 입는다거나 어떤 복장을 한다는 제도는 없습니다. 또 禮記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계실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어찌서 일년상을 입는가? 아버지가 계시는데 감히 어머니를 위한 尊慕의 마음을 과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본다면 어머니를 위해 3년喪을 입는 것은 아마도 뒷날의 제도인 듯하며 家禮는 이것을 著錄하여 후세 사람들을 敎導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미 家禮의 가르침을 따라 心喪을 입고 있는 바에야 家禮의 禫服을 써서 세속의 기존 예를 따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일반 父兄들이 보고 들은 바에 익숙하여 모두 禫服에는 靑黑色을 쓰는 것으로 여기는데 하루 아침에 순백의 服을 입고 이로써 居家하여 이 1년의 喪期를 마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아버지의 뜻은 그래선 안된다거나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자식이 억지로 古禮대로 행한다면 아마도 禮와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는 다만 일년상을 입는다

는 말은 儀禮 疏衰杖期章에 보인다. 일년상을 마쳤으면 禮로는 당연히 상복을 벗고 일체의 정상상태를 회복하며 喪期가 끝난 뒤에 어떠한 관복을 입어야 마땅하다는 요구는 없는 것이며 어머니를 위해 계속 心喪을 입어야 한다는 제도는 더욱 없는 것이다. 퇴계는 주자가례의, 어머니를 위해 心喪三年을 늘리는 제도를 따를 것에 동의하고 자연히 家禮의 禪服에 흑색을 쓴다는 방식에 비추어 관복도 한결같이 흑색을 채용하고 백색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판단은 퇴계 전서 가운데 여러 차례 보이며, 당연히 이것이 퇴계가 禮事를 판단하는 하나의 원칙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무릇 禮事에 속하는 판단은 가급적이면 근거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의례와 가례에 실린 것이 합치될 때는 자연히 의례를 근거로 삼아야 하며 의례에 실린 것이 가례와 다를 때는 가례에 실린 것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아마도 의례의 지어진 시기가 멀어 근세에 필요한 것과 다 맞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며 그러므로 차라리 가례를 취하지 의례에 의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주자가례와 동시의 습속이 다른 것을 만났을 경우, 퇴계는 반드시 가례를 버리고 습속을 따랐다. 이유는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丁丑年の「與李剛而答問」에서 이르기를, 「제사지낼 때 서(立) 있어야 하는 것이 禮文에 근거했음은 의심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습속으로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도 자제들이 侍立하는 禮가 없으니 제사지낼 때라해서 古禮와 다 같을 것은 없습니다. 墓祭, 忌祭같은 것도 모두 습속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고 했다.

丁卯年の「與李仲久問答」에서 이르기를 「이에 책을 그대로 다 믿는 것은 책이 없음만 못하다(盡信書不如無書)는 말뜻을 알았습니다. 儀禮經典에도 오히려 미비한 것이 있으니 한쪽만 치우치게 믿고 일을 판단해서는 안되겠습니다.」고 했다.

儀禮經典이란 朱子の「儀禮經典通解」를 말한다. 주자의 이 著作은 사

실상 의례와 예기에 의거한 것으로 이미 時宜를 참작하여 고친 부분이 적지 않은 책이다. 그러나, 가례와 통해에 실린 것이 확실히 의거할 수도 있는 것이었고, 심지어 당시의 속습이 비루하여 禮書대로 따르는 것이 옳음만 못했지만, 퇴계는 때로 이미 온 세상이 遵由하고 있는 바에야 하필이면 반드시 세상사람들에게 억지로 모두 내 주장을 따르게 할 것이 있는가고 생각하였다. 반드시 지금 이미 통행하고 있는 습속을 강제로 고쳐 古制나 禮書에 맞게 하려면 집행하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情理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퇴계언행록 권4의 「答金誠一問」에서 이르기를,

禮라는 것은 천하에 널리 퍼져 행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행하지 않으면 비록 있더라도 空文이 되고마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 했다. 이 말은 비록 주자를 대신해서 답한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퇴계 자신의 의견이기도 하다.

(三). 春 秋

공자가 魯나라의 史記에 근거하여 春秋를 修纂하였는데 그 주요한 까닭은 이론을 말로만 해서는 실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춘추시대 240년간의 허다한 사례를 善用하고 유가의 이론과 입장 및 안목에 의하여 是非得失의 평단을 내려 후세 사람들이 행사의 참고로 삼도록 남겨 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春秋를 이해하려면 응당 春秋가 가지고 있는 도덕평가기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漢 唐朝의 史傳에서는 春秋大義를 끌어 시비평론의 의거로 삼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퇴계전서 가운데도 이러한 기록이 있다.

己巳年の 「與奇明彦答問」에서 이르기를 「明宗大王을 仁宗大王에게 舍祀하지 않으려는 문제에 있어서는 옛날에도 이러한 유례가 있었으나 모두 사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대개 아우가 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면 일

찍이 신하의 입장에서 섬기다가 大統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至當不易의 도리로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春秋의 旨義나 程朱의 論은 모두 각각 一世로 하여 처리했습니다.»고 했다.

이로써 퇴계가 평소에 群書を 博覽했으며 春秋經에 대해 일찍이 읽은 바가 있어 그다지 생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義理之學에 側重했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장 절실하고 요긴한 학문으로 간주하고 기타의 것에 섭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純淨寧靜을 어지럽힘을 피하려 했으므로 평소에 언급이 매우 적었던 것이다.

戊午年の 「答鄭子中書」에 이르기를, 「言行錄」(이 때 鄭惟一은 송대 명신들의 언행록을 편집하고 있었다. 역자 註)에 대해 제가 몇 마디 드린 말씀은 그대가 초고를 불사르고 그만 두기를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그 일에 빠져서 進修의 공부를 방해하거나 너무 바빠 서둘러서 悠遠한 기상을 해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주자께서 路德章이 春秋를 편집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 말하기를 「이러한 것은 여가 있을 때 해야지 이런 일로 함양 공부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뒤에 路德章이 그 일을 흐지부지하는 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전에 편술한 것이 정밀함을 보고 책이 이루어지면 유익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해서 그때 당장에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남을 위해 무엇을 할 때 힘껏 하지 않는 것(爲人謀而不忠者)』이 꼭 내 행위에 해당하는구나. 학문을 함은 원래 治心을 위해서인데 지금 路德章은 治心 공부가 부족하면서 心을 밖으로 치닫게 하여 도리어 해가 되고 말았으니 어찌 미혹함이 심하다 하지 않겠는가?」고 했습니다.»라 했다.

퇴계는 이 글에서 주자의 의견을 인용 서술하고 학문을 하는 목적은 바로 心神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路德章이 春秋를 편집한 것은 마음이 밖으로 치달려 도리어 해로운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퇴계가 이러한 고사를 인용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그는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鄭子中에게 반드시 心學에 專心致志할 것과, 詩文에 지나치

게 빠지지 말 것과, 마음을 산만하게 하지 말 것과, 이러한 것으로 進修의 工夫에 방해되게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상 퇴계는 분명히 주자의 春秋에 대한 견해에 동의하여, 春秋는 여가가 있을 때 다시 연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涵養工夫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할 수 있겠다.

(四). 左傳

춘추의 문자는 지나치게 간략하여 史記 공자世家에 춘추를 두고 말하기를, 「그 文辭는 간략하나 가리키는 바는 넓다.(約其之辭而指博)」고 하였다. 간단한 문구가 오히려 매우 풍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만약 左傳을 읽지 않으면 우선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없고 자연히 공자가 춘추를 修纂하면서 부여해 놓은 褒, 貶, 筆, 削의 微言大義를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漢書 藝文志는 「左丘明이 本事を 논하여 傳을 지어, 공자께서 空言으로 說經하지 않았음을 밝혔다。」고 하였다. 本事を 논하여 傳을 지었다는 말은 左傳이 사건으로써 經文을 해석한 특색과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춘추經文에 간단한 한마디가 있으면 左傳은 반대로 수천 자의 긴 글로써 그 사건의 本末과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그 사건 서술의 내용에 있어 「혹은 經文보다 먼저 始事하기도 하고, 혹은 經文보다 뒤에 終義하기도 하며 經文에 의거하여 辯理하기도 하고, 經文과 交錯하여 舛異하기도 하는」(杜預의 서문) 등의 상황이 있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갖가지 기술방법상의 변화에 있어 심지어는 때로 그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선이나 예언을 按排하였으므로 晋代人 范寧 같은 사람은 이 점에 근거하여 左傳 기록의 진실성을 의심했으며 穀梁 傳集海序에서

左氏傳의 특성은 文辭가 아름답고 풍부한 것이며, 결점은 귀신의 일을 많이 서술하고 禍福의 시기를 예언하는 것이다.

라 말했다. 그 뒤 당대의 談助, 趙匡, 송대의 鄭樵 주자같은 사람들은 모두 疑議를 표시한 적이 있다. 퇴계도 春秋左傳에 대해 나름대로의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己巳年の「答鄭子中書」에서 이르기를, 「左傳은 다 믿을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易占 蓍驗이 그러할 뿐 아니라 무릇 死喪成敗같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당시 유명인의 先知, 先見의 說을 빌어서 張本으로 삼고서 뒤에 그 일을 드러내어 이에 부응하게 합니다. 왕왕 다 이러하니 아예 사람으로 하여금 읽기에 지겹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지은 사람의 들뜨고 허황한 사고와 교묘한 언변을 알 수 있으니 높일 만한 것이 조금도 못되는 것입니다.」라 했다.

또 퇴계는 朴澤之가 擊蒙傳과 三候傳을 지어 서문을 청했을 때 쓴 답서 가운데서도 자신의 左傳 등의 책에 대한 견해를 표시하였다.

丁巳年の「與朴澤之書」에 이르기를, 「저는 四書 이외의 책에 수록된 공자의 언행은 대개가 전국시대의 간사하며 거리낌없는 자들의 假託을 통한 자기과시나, 秦漢代의 엉터리 선비들이 의리에 어두운 傳聞으로서 서로 뽑내던 것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說은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左傳, 史記, 禮記 같은 책에 실린 것들까지도 그러한데 하물며 孔子家語, 說苑 등 잡서에 실린 것이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지금 그대가 취한 공자 및 문인들의 언행이 너무 雜駁한 듯하여 전혀 성현의 기상같지 않으니 적당히 추리시는 게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성현이 고귀하다는 것이 남기신 말씀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량해서 군더더기를 버리신다면 어찌 해될 것이 있겠습니까?」라 했다.

잠시, 左傳에 전국시대 姦人의 假託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나 左傳에 실려 있는 공자의 말이 의리가 애매하여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문제까지도 논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퇴계가 左傳을 취하지 않은 까닭이 문자가 들뜨고 허황하다고 생각한 것을 제외하고서도 「성현의 기상 같

지 않다」는 비평 때문임을 알 수 있다.

(五). 周禮

周禮의 원래 이름은 周官으로, 王莽 정권 때 劉歆이 禮經博士를 들 것을 건의한 후에 周官經이라 이름을 바꾸었고 周禮라 부르기도 한다. 가장 먼저 이 책의 작자에 대해 얘기한 사람은 鄭玄으로 周禮註에서 「周公이 섭정할 때 六典의 職을 만들어 周禮라고 하였다.」고 했다. 이때문에 한, 당대에는 대체로 모두 周公이 지은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송대에 이르러 왕안석이 주례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新政을 실시하자, 많은 사람들이 왕안석을 반대하기 위해 연대적으로 자연히 新法이 의거한 주례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했다. 그 중 張載, 程頤, 蘇轍 등은 「후세인들이 가끔 가필한 것도 있다.」(朱彝尊의 經義考에서 재인용)고 말했을 뿐이나 胡宏, 洪邁, 王炎 등에 이르러서는 근본적으로 전국시대의 僞書라 생각했다. 그러나 주례 가운데는 다만 西周시대나 혹은 보다 더 이른 시기에 통용되었다가 뒷날 다시는 사용되지 않았던 古字가 적지 않으므로 이 책의 유래가 매우 이른 것임을 지적한 사람들도 있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여전히 고증이 필요한 의안인 것이다. 이 책에 대해서도 퇴계는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었다.

自省錄에 실린 「重答黃仲舉書」에서 이르기를, 「무엇을 制度文章이라 하는가? 周官經에 기록된 허다한 法制 및 옛날의 經禮三百 曲禮三千 가운데서 대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으나 후세에 약간씩 증가 혹은 감소시킨 것과 모든 政教號令이 다 이것이다.」라 하였다.

甲子年의 「與鄭子中書」에 이르기를, 「주례는 일찍이 읽지 못했고 지금은 정력이 미치지 못하니 읽을 인연이 없는 듯하여 늘 어루만지며 장탄식을 할뿐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해 前賢들은 周公이 天理를 능숙히 운용한 책이라 생각했으나 저는 책 내용이 아마도 너무 繁密하여 시행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의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고 했다.

퇴계는 일면으로는 이 책이 제도를 밝힌 책이라 인정하면서도 일면으로는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 지나치게 繁密하여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였다. 작자의 시대와 진위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생략하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이미 「의심스러운 것이 있음」을 느꼈으므로 자연히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六). 禮 記

여기는 先秦시대부터 西漢 초기까지의 儒者들이 禮를 논한 雜著를 모아 편집한 책이다. 내용은 매우 풍부하여 禮義를 闡釋한 것, 禮經의 부족함을 보충한 것, 당시 인물들의 行禮에 있어서의 잘잘못을 기록한 것, 禮制변화의 연유를 기록한 것 등등 다양하다. 더욱이 제도의 설명 및 시비득실의 판단 방면에 있어서 충분히 후인들의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다. 그러므로 퇴계전서 가운데는 禮記 各篇을 인용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曲禮, 檀弓, 王制, 曾子問, 內則, 喪服小記, 大傳, 雜記, 喪大記, 祭義, 鄉飲酒義 등이 이것이다. 우리는 퇴계가 다방면에서 인용하여 증거로 삼고 있으며 또한 운용이 精熟하고 처리를 적절히 하고 있음에서 그가 평소에 이 책을 늘 읽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예기에 기록된 공자 및 제자들의 언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빙하지 않은 듯하다. 앞서 左傳條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퇴계는 丁巳年の 「與朴澤之書」에서 四書を 제외한 책에 기록된 공자의 언행은 대부분이 전국시대 사람들의 假託이거나 秦漢間의 傳聞이며 「左傳, 史記, 禮記에 실린 것까지도 그러하기 때문에」그 說은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禮記 祭義篇을 보면 宰我が 공자에게 「저는 鬼이니 神이니 하는 이름은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귀신입니까?」고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氣라는 것은 神이 가득 참에서 것이고, 魂이란 鬼가 가득 참에서 있는 것이다. 鬼와 神을 합하여 제사하는

것은 聖王의 지극한 교화의 所致이다. 모든 생물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歸). 이것을 귀(鬼)라 한다. 골육은 땅속에서 썩어서 흙이 되나 그 氣는 위로 올라가서 신령하고 광명하며 냄새 있는 蒸氣가 되고 사람에게 느낌을 주는 것이 된다. 이것이 생물의 정령이며 神이 드러난 것이다」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 귀신이라는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해석한 기록이다. 그러나 이것이 공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논어 雍也篇에서 공자가 말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는 것과, 述而篇의 「공자는 괴이하며 황당무계한 일이나, 옛날 力士들의 괴력에 관한 일이나, 윤리 도덕에 어긋난 일이나, 귀신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子不語, 怪力亂神)」는 귀절과, 先進篇의 「산 사람 섬기는 도리도 모르면서 어찌 귀신 섬기는 도리를 알겠느냐(未能事人, 焉能事鬼)」, 「생전의 일도 모르면서 어찌 사후의 일을 알겠느냐(未知生, 焉知死)」는 귀절을 매우 쉽사리 연상케 한다. 공자는 늘 이러한 문제를 얘기하길 꺼렸던 듯하다. 그렇다면 祭義篇의 기록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퇴계도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戊午年の 「答南時甫書」에서 이르기를, 「공자께서 宰我에게 대답하였다는 禮記의 말 같은 것은 혹 다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주자께서 이미 中庸章句에서 이 말을 취했고 또 中庸本文에도 「그 득히 살아 있는 듯 하다」는 등의 말이 있기는 하나 여기엔 참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고 했다.

역시 戊午年에 南時甫에게 답한 편지에서, 「옛날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 처럼 했고, 돌아가신 조상을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 처럼 했었는데 그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잠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이로써 효자의 마음을 위안했던 것으로 事理가 바로 이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본다면 공자께서 宰我的 물음에 답하신 것도 의심할 것이 없겠습니다.」고 했다.

공자가 귀신에 대해 거침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평소의 언행과 다른 듯했기 때문에 퇴계는 禮記의 기록에 「혹 순수하지 못한 것이 들어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다시 주자가 中庸章句에서 「귀신이 그득히 자기의 위에 있는 듯 하며 좌우에 있는 듯하다.(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는 본문 아래에 禮記에 기록된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보고는 주자가 이 말의 내용에 대해 그다지 의심하지 않았음을 알았고, 이 때문에 다시 효자를 위안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해석했다. 비록 이러하였으나 퇴계는 공자 언행에 관한 이런 종류의 기록에 대해서 그것이 禮記라는 책에서 나온 것이라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었음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Ⅲ. 結 論

퇴계는 일생을 心性理氣의 學에 致力하였고, 그의 이상과 목표는 당연히 성현의 사업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함양 공부는 程朱一派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治學의 기초를 자연히 四書 위에 세웠던 것이다. 그래서 퇴계선생 행실의 「그러므로 종일 논하시는 것이 孔子, 曾子, 子思, 孟子, 周子, 程子, 張子, 朱子의 책을 넘지 않으셨다」는 기록은 매우 정확한 것이다. 사실 퇴계가 평소에 접촉한 유학의 경전들은 그 숫자에 있어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심중에 이미 원칙이 정해져 있어서 의식의 순수하고 맑음을 추구하고 雜博함에는 힘쓰지 않았다. 그래서 평생의 강론이 여전히 四書의 범위 안에서 맴돌았으며 기타의 경정에 대해서는 대강 읽었을 뿐 깊이 연구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 때문에 앞에서 논술한 것을 종합하면 퇴계가 四書 이외의 儒家群經에 대해 가졌던 의식관념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대략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며 아마도 퇴계의 도덕, 학문의 성취에 있어서의 內涵과 한계를 탐구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一, 부분적인 經書의 내용은 완전히 窮理盡性의 學인 것은 아니다.
- 二, 부분적인 經書는 모두가 배우는 사람의 日用工夫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니다.
- 三, 부분적인 經書는 이미 時宜의 적합하지 않거나 실용에 긴요한 것이 아니다.
- 四, 부분적인 經書는 너무 지나치게 번잡해서 쉽게 집중력을 헤이케 하여 涵養工夫를 방해한다.
- 五, 부분적인 經書는 후인들의 僞作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내용이 성현 기상과 거리가 있으므로 믿을 수 없다.

사실 이러한 견해는 宋儒들의 언론 중에서도 여러 차례 볼 수 있는 것으로 어쩌면 퇴계는 바로 宋儒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의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되면 적어도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결과를 형성하게 된다.

- 一, 공자가 編定한 후세 經書와 儒者들이 유학을 闡釋發揮한 著述간의 한계를 없앴기 때문에 공자가 編定한 경서의 原意 및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파악할 길이 없다.
- 二, 전체적인 체계 가운데서 어떤 한 단계의 발전과 성취만을 긍정하였을 뿐이므로 꿰뚫고(貫穿)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유학의 전반적인 인식을 얻고 나아가 通儒의 경지에 이를 길이 없다.
- 三, 어떠한 단락만을 잘라내어 부분적으로 독립된 형상을 만들어 내었고 더욱이 학술의 원류와 관계되는 자료를 배제하였으므로 강물이 일단 주류를 잃으면 매우 쉽게 고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술의 변질을 초래하였다.

소견이 천박하고 비루하다. 大家의 교정이 있으시길 바란다.

(김 언 종 譯)